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사회실험 보고대회 | 2026.3.19

# 농사를 다시 가능하게 하는 돈

## 청년 농민 기본소득 사회실험

한인정-이지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청년 농민이 된다는 것

청년 농업 인구 감소

농촌 지속가능성  
위기

드러나지 않는 삶

농민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일이 아니다 — 삶의 감각을 흔들고 다시 배열하는 경험이다.

# 도시에서의 소진

## 시간 주권의 상실

“삶 자체가 회사에 묶여 있었다”  
퇴근 시간은 고정되지 않았고,  
야근과 회식은 예외가 아닌 일상이었다.

## 과로로 잠식된 관계와 몸

모니터 앞에서 보내는 하루, 쌓이는 피로.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은 주말에나 겨우 가능했다.  
쓰러지지 않는 것이 신기했다

## 희망이 없는 미래

“이런 사이클이 20년 반복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 탈주 욕망

# "빨리 도망가야겠다"

서울에서 10년을 보낸 후

탈주는 충동적 선택이 아니라,  
장기간 축적된 압박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내가 무너질 것 같은 상태에서 엄청 예민해졌죠. 결국 관계가 깨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거지..”

# 다른 삶을 탐색하기

탈주 욕망

잠재된 경험의 재활성화

관계를 통해 농민이 되다

가족·배우자

지인·멘토

제도·지원사업

농촌으로의 이동은 단일한 결단이 직선적으로 실행된 결과가 아니라, 흩어져 있던 경험과 관계가 특정 시점에 맞물리며 만들어진 경로였다.

# 감각의 변화

## 1. 주도권의 감각

알람을 맞추지 않는다  
 흙의 상태, 날씨, 작물의 속도  
 통제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주도권'을 잡기 / 파도를 타는 일

## 2. 몸-자연과의 접촉

자연은 주말에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일상이 된다  
 바람의 방향, 해의 길이, 흙의 수분  
 “일하다가 다래밭에 누워있으면, 그림이에요. 워라벨이 따로 필요 없어요.”

## 4. 더에서 '덜'로

윤리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호미로 지어야 보이는 것들  
 트랙터로 3시간이면 할 일을, 3달 동안 삽으로 하는 일  
 미련한 농사, 미안함을 되새기는 농사

## 3. 시간과 관계의 재배치

바쁨은 그대로지만, 함께 보내는 존재가 많아짐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 가족과 산책하는 시간  
 들에 나가 나무를 뜯는 시간

# 삶의 재조정

## 01 멈추기

확장 대신 머무름. 감자농사를 접어야 할지 따져보다, 섭섭함이 올라온다. 그때, 청년은 자신이 계속 농사를 지을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고 했다. 계산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 말해주는 것이다.

"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싶어요."

## 02 리듬 찾기

각자의 몸과 조건에 맞는 속도를 세우는 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는 사실을 결함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리듬에 맞는 작물을 고른다. 하루쯤 비워도 괜찮은 콩, 안정적인 벼농사.

"토마토들이 다 자기 쪼대로 큰단 말이죠.  
그걸 보면 되게 위로가 되거든요."

## 03 속도 조정

시장의 압박을 거부하지 않되 완전히 휩쓸리지도 않는 자리. 다래가 안 팔리면 잼을 만들고, 잼이 안 나가면 체험을 연다. 꾸러미, 장터, 산나물을 오가며 속도를 낮춰 흐름을 만든다.

"저러고도 재미있게 사네."

빠르게 성장하지 않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일. 그 사이에서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속도를 나누고, 덧대고, 완충한다.

# 농사의 현실

## 시장에 반영되지 않는 노동

친환경 농사는 더 많은 시간과 몸을 요구한다.  
"손은 두 배로 가는데 돈은 그대로." 노동과 보상의 불일치가 반복되며 빛의 굴레로 이어진다.  
. 대출을 갚기 위한 농사가 시작된다.

"손은 두배로 가는데 가격은 똑같아요"

## 노동의 중첩과 소진

농사만으로 생계가 안 되니 겸업을 한다. 새벽 골프장 잔디 일, 배달, 일용직. 그러나 이 겸업이 친환경 농사를 지속할 체력을 빼앗는다. 자연은 지속가능하게 하지만 내 몸은 다 망가진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골프장 일하고, 애들 등원시키고, 바로 밭 가요."

## 족쇄가 되는 지원

청창농은 지원이 아니라 통제의 기억으로 남는다. 농업 관련 일을 했다는 이유로 환수 조치. 반복된 소명 요구. 30만 원 이상 지출에 공무원 사전 승인을 받는다. 농민을 신뢰하지 않는 행정의 모습이다.

"농민을 키우겠다는 느낌이 아니라 의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연은 지속가능하게 만드는데.. 내 몸은 지속가능할까?

# 농사는 자격과 조건으로 규정된 세계

## 기존 농정의 논리



농업인은 경작 면적, 노동 일수, 판매액으로 정의된다.  
 소출을 내야 농사고, 전업이어야 농민이다.  
 땅과의 관계, 삶의 방식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첫 번째로 물어보는 질문이 얼마나 짓냐,  
 소출은 얼마나 되냐. 그 기준으로 보면 제 농사는 농사가 아닌 거예요."

## 친환경의 역설

'어떤 윤리와 어떤 시간으로 땅과 숨 쉴 것인가'를 논의하던 친환경의 본래 뜻이, 정책으로 들어오면서 토양 유기물 함량, 비료 종류, 병해충 방제 계획 등 식별 가능한 항목의 집합으로 축소된다.

손으로 김을 매고 잡초를 관리하는 것은 아무데도 남지 않는다. 친환경 교육을 받을 때는 '삶의 전환'으로 다가왔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힘은 힘대로 들고 바보 같다는 소리나 듣는 일이 된다.

친환경 철학이 정책으로 들어오며  
 식별 가능한 항목의 집합으로 축소되었다.

기존 농정 : 자격 → 증명 → 지원

청년농어민 기본소득 사회실험 : 지원 → ?

# 청년 농민을 신뢰하는 '돈' = 기본소득

## 10명

청년 농민  
만 39세 이하, 친환경 농업

## 30만 원(현금)

매월  
조건 없이, 질문 없이

## 3년

2023년 4월  
~ 2026년 3월

### 기존 농정

### 자격 → 증명 → 지원

증명할 수 있는 사람만  
농민으로 인정받는다

### VS

### 사회실험

### 지원 → 농사 → ?

조건 없이 먼저 지원하면  
어떤 농사가 가능해지는가

# 버틸 수 있는 조건

"불안의 무게가  
달라졌다."

삶이 안정됐다는 말이 아니다.

최소한의 안전망이 생기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던 불안에서 빠져나와  
삶을 기획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이다.

## 목돈 부담이 줄었다

겨울엔 도지세, 자재값 외상까지. 소득 없는 시기와 지출이 겹치는 구조.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그 간격을 메웠다.

## 임금노동의 강제성이 낮아졌다

농사를 미루게 만들던 압력이 줄었다. 언제 얼마나 나갈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대출 이자를 메꾸며 농장에 집중할 수 있었다.

## 다음 계절을 기다릴 수 있었다

농사가 잘 안 된 해에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다. 버티는 것 자체가 농사의 일부다. 30만 원은 그 시간을 함께 인내하는 동반자였다.

30만 원은 크지 않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농사

## 기존 정책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증명해야 한다.  
 얼마나 지원받을 만한지 설명해야 한다.  
 곤궁함을 과장해서 보여줘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낀다.

자존감이 깎이고, 정책에 다가간 경험이 상처로 남는다.  
 그 결과, 끊임없는 자기검열에 들어선다.  
 내 선택이 맞았던걸까? 지금이라도?

"곤궁함을 과장해서 보여줘야 할 것 같은 압박도 느낀다."

## 이 실험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앞으로 뭘 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3년 동안 연 1회 간담회가 전부. 그조차 자율이었다.  
 설명도 정당화도 필요 없었다.

그제야 스스로 생각할 여유가 생겼다.  
 내 선택이 맞는지, 무엇을 시도해볼지.

"처음에도 증빙하거나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뭘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마음이 정말 안심이 됐고."

조건이 없다는 것은, 농사의 이유를 잃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다.

# 나의 농사, 나의 삶

## 기다릴 수 있는 농사

나무는 4년을 기다려야 열매가 열린다. 기본소득으로 무화과, 사과, 자두, 살구, 대추 나무를 샀다. "돈이 없다보니 바로 수확할 수 있는 것만 심게 되잖아요. 근데 기본소득이 있어서 나무를 심었어요."

## 나를 위한 삶

블루베리 밭 가는 길목에 라일락과 수국을 심었다. 먹을 수 없지만 보기 좋아서. 필라테스를 시작해 오랫동안 미뤄온 자기 몸을 돌봤다. 아이들과 바닷가 카페에 갔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경험"이라고 했다.

## 함께하는 삶

성과에 연연치 않는 독서 모임, 농촌 잡지, 공개강좌가 열렸다. 정부 지원이었다면 사업계획서부터 결과보고서까지.(안했을 것이다) 기본소득은 간섭 없이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돈이었다. "그냥 주는 것이 상상력을 열어주죠."

## 연대를 권할 수 있는 조건

빛을 함께 지자는 말처럼 들릴까봐 농촌을 추천할 수 없었다. 기본소득이 있다면 달라진다. "최소한 기본소득이 있다면, 우리답게 살아갈 수는 있으니까."

30만 원이 이야기를 살렸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돈의 의미를 바꿨다.

# 함께 살아남기

## 동료를 만드는 농사

씨앗을 함께 지키고, 기후를 함께 읽고, 잡초를 함께 판단한다. 동료는 감정적 지지 이상이다. 판단을 나누고, 실험을 가능하게 하며, 농사의 시간을 이어 붙이는 구조다.

씨앗모임, 공동채종포, 숲밭 만들기, 느슨한 연대

## 문화를 짓는 농사

농한기의 빈 시간을 공동의 활동으로 채운다. 풍물패, 맥주 동아리, 밭 콘서트, 농촌 잡지. 문화는 취미가 아니라 농사의 감각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방식이다.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노래를 부르고 기획을 했을지 모르겠다."

## 정책을 심는 농사

밭에서 겪은 막막함이 '다른 사람은 겪지 않게 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현장의 감각이 공적 언어로 번역될 때, 농사는 사회적 가능성이 된다.

"그냥 주는 것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농사가 한 사람의 생업을 넘어, 관계와 시간, 제도를 다시 배열하는 실천이 된다.

# 지원 방식의 변화가 '나다운' 농사를 가능하게 한다

관리 대상



삶의 주체

규범화된 농사



나다운 농사

증명하는 농민



질문하는 농민

이 실험이 보여준 것은, 지원의 방식이 달라지면 농사의 의미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신뢰했을 때,  
농민들은 증명하는 대신 질문했고, 버티는 대신 실험했으며,  
혼자 살아남는 대신 함께 살아남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끼는 크기가 큰 식물들이 살 수 없는 공간을 차지한다. 작기 때문에 한계는 강점이 된다."

"빛이끼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건,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장소로 우리를 데려온 수많은 우연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런 선물에 보답하는 적절한 화답은 반짝이는 것뿐이다."